

『哲學』概念의 變遷

哲學의 普遍的 定義의 難點(5)

金午星

哲學의 普遍的 特性을 哲學史 上에서 비저 내려든 史家들의 努力은 徒勞에 不過하였다. 그러나 哲學은 그 어느 時代, 어느 哲學 體系를 勿論하고 래 그가 特殊科學과 自己를 區分하고 잇는 以上 그 對象이나 方法을 어느 特殊的인 것에서 求하지안코 어대까지나 一般的 普遍的 究極的인 것을 志向하고 잇는 것이니 사람들이 哲學에 向하야 時空을 超越한 普遍的 定義를 要求하는 것도 決코 無理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哲學 自體의 歷史 우에서 그 一般的 特性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 哲學을 한 개의 學問 形態로서 外部的으로 一致되는 定義를 求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은 可能的 일인가? 定義를 비저 내는 것은 論理學의 일이다. 그런데 普通 論理學에 依하면 어떤 한 개의 事象 속에서 完全的 定義를 차저 내려면 그 事象의 上位 概念 즉 그 事象을 包括할 수 잇는 類概念과 그 事象이 다른 모든 事象과 明確히 區分되는 特徵 즉 種概念이 주어져 잇지 안흐면 안된다. 예를 들면 物理學의 現象이 完全히 定義되려면 그 直上位에 物理的 現象을 包括할만한 一般 自然科學的 現象이 한 개의 類概念으로서 주어져 잇서야 하며 또한 物理學 自體가 달은 科學, 즉 數學, 化學, 生物學 等과 明確히 區別되는 自己 特性으로서의 類概念을 갖고 잇지 안흐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하는 대서만 物理學은 自然科學의 一部門으로서 規定되는 同時에 또한 달은 科學들과 區分되는 物理學의 特殊性이 明確히 定義될 수 잇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論理的 條件이 哲學이 주어져 잇는 것인가? 哲學을 包括할 哲學의 上位 概念은 무엇일까? 그리고 哲學이 다른 學問과 區分되는 種의 特徵은 무엇일까?

哲學의 上位 概念으로서 우리는 學問(Wissenschaft)을 들 수 있다. 哲學은 學問 形態의 하나이며 學問 가운데는 哲學만이 아니고 모든 科學 藝術 等等이 包括되어 잇는 까닭이다. 그러나 哲學을 學問 形態의 한아로 보는 대는 커다란 困難이 있다. 歷史 上으로 보아 最初의 哲學은 哲學 그것이 唯一의

學問이요, 類概念으로서의 學問과 種概念으로서의 哲學이 區分되어 있지 않다. 希臘人에게 잇서는 그들의 知的 活動은 全一的이였고 今日과 가튼 知的 分化가 업섯다. 필로소피-는 모든 知를 包含한 全一的인 知的 活動이였든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近世에 와서도 있다. 데칼트, 헤겔, 스펜사- 등의 宇宙論的 傾向은 다른 學問 즉 特殊諸科學, 藝術, 道德, 宗教 等を 哲學의 一部分으로 보는 全一的 體系이였다. 여기에는 哲學의 上位 概念에 該當한 類概念이 成立되지 못한다. 따라서 哲學이 달은 學問과 五分되는 種概念으로서도 成立될 수 업는 것이였다. 이리하여 哲學의 定義가 困難하게 되는 것이다.

또 設或 哲學이 다른 學問과 區分된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다시 哲學이 果然 學問에屬할 수 잇슬까가 疑問이다. 希臘人에 잇서는 哲學은 한 개의 形而上學이였다. 그러나 近代人에게 잇서는 形而上學은 學問으로서 不可能한 것이였다. 그리고 스토아 學派, 에피쿠로스 學派에 依하면 哲學은 어떤 學的 體系가 아니요, 安心立命을 爲한 한 개의 處世術에 不過한 것이다. 近代에 잇서도 哲學이 學問的으로 論究 됨을 즐겨 認定치 안는 사람이 업지안타. 보-세에 依하면 哲學은 한 개의 『大悟』로서 宗教의 한 階段으로서 滿足한 것이다. 소펜하우엘은 哲學한 한 개의 直覺이요, 學的, 方法的 勞作으로서 證明되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니-체에 잇서는 哲學은 嚴密한 意味의 學問 體系가 아니라 勝義의 人生觀에 지내지 안혔다. 最近의 實存哲學도 學籍이라기보담 차라리 藝術的 文學的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哲學은 學問이란 上位의類概念에 從屬됨에는 狹窄을 느끼지 안홀 수 업으며 學問은 그 複雜한 淵泉과 奔放한 着想을 가진 哲學을 自體의 下位에 잇는 種概念으로서 責任지기에 難色을 느끼지 안홀 수 업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哲學의 定義를 全哲學史에 求하지 말고 오즉 近代에 局限해서 찾는다면 以上の 困難을 免할 수 잇을 것이라는 同時에 모든 原子核은 陽子와 陰□子로 構成되야 잇는 것이라고 생각되얏섯다.

天然의 放射性 物質의 原子核이 自然히 崩壞되야 다른 元素로 變해 간다면 人工的 으로 어떠한 手段을 講究해서도 元素를 變換 할 수가 잇지 안할까. 그것은 될 수 잇는대까지 예닐기 密度가 큰 外力을 原子核에 加하지 안하면 안된다. 一九一九年 英國의 라사포드는 A粒자를 窒素에 부드치어 가지고 酸素를 變換하기에 成功하얏다. 이것이 人工的으로 原子를 變換시킨 嚆矢다.

그 뒤 一九三一年 라디움 發見者로서 有名한 キュ리 夫人의 딸이레느·キュ리夫人의 夫妻는 (キュ리·쪼리오) □素에 a線을 부드치어 가지고를 맨들었는데 이 窒素는 不安定해서 B粒자를 내노흐면서 漸次 炭素로 되야 가는 것을 알어

내었다. 이것은 人工 放射能의 發見으로서 母女가 함께 不滅의 學勳을 남기어 노흔 것이다.

이 人工 放射能의 發見에 使用된 キュ리·쥘리오의 實驗이야말로 中性子 發見의 端緒를 提供한 것이니 英國의 查드윅(Ohadwick) 은 그 臨時에 中性子が 放射된다고 說明한다. 그것이 中性子の 存在를 提唱한 맨 첫 번으로서 역시 一九三二年이다. 中性子は 그 이름이 보이는 바와 가치 中性으로서 荷電이 업고 質量은 約 陽子와 비슷하다.

여기서 原子核에 關한 생각은 新生面을 開拓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 中性子の 發生에는 a粒자를 베리리움에 衝擊시키거나 重水素 이온을 重水素에 衝擊시키는 方法이 使用되고 이 重水素 이온을 加速시키는데 사이크로톤이 使用되어야 있다.

中性子は 中性이니까 磁場에서 電場에서나 그 引力 斥力의 影響을 맞지 않는다. 水素의 原子核과 大體 同等의 質量을 가지고 만흔 原子核과 比較해서 제일 가벼운 쪽이다.

이 가벼운 粒子가 多種의 무게를 가지고 잇는 多種의 比重의 物質을 通過하는 그 모양을 생각해 본다면 中性子 自身과 가튼 가벼운 粒子에 衝突한 便이 무거운 물건에 衝突한 때보담 運動이 끈치기 쉽다. 마치 鬪球板의 白黑의 球를 따릴 때 自身과 同重量인 敵球에 부드치면 自身은 고만 딱 運動을 停止하고 그 運動 全部가 敵球로 옮기어 가는 것과 갓다. 그러나 敵球가 自身보담 훨씩 무겁다면 아마 튀어서 돌아 와서 運動의 方向은 달려서도 그 運動은 停止되지 안 할 것이다. 이것은 鬪球板의 球가 釘과 周圍의 板에 부드치는 것을 보아서도 곳 알 수 잇는 일이다. 中性子도 同樣으로 自身과 同等의 質量에 가장 停止 되기 쉬운 것으로 무거운 粒子에 부드치어서 運動의 方向이 달라질찌언정 좀처럼 停止되지 안는다.